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 '본격화'

익산시, 착수 보고회 개최... 유치전략 수립 위해 마련

익산시가 지역발전의 교두보가 될 타깃 공공기관 선정과 유치활동 전락수립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시는 1일 상황실에서 제2차 이전 공공기관 익산시 유치전략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이 가시화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익산의 지역 특성과 연계한 공공기관 유치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역 현황 및 여건 분석, 공공기관 유치 타당성 및 기대효과 분석 등 주요 과업에 대한 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 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유치 대상 공공기관을 선정하고 유치 타당성 및 논리 개발과 함께 유치 대상 공공기관별 유치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관 익산 유치

성공을 이룰기 위해서는 익산의 강점을 담은 차별화된 유치전략 마련이 중요하다"며 "용역을 내실있게 추진해 지역 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공기관 유치를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7월 말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9월에는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병행해 정부와 전북도의 정책 방향에 발맞춰 유치대상 기관 방문 등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사)군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황진) 주관으로 1일 문화경로당을 시작으로 오는 7월까지 2023 경로당 식사도우미 시범사업 '밥퍼스봉사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따뜻한 마을 공동체 구현할 것"

군산시자원봉사센터, 경로당 식사 도우미 시범사업 밥퍼스봉사단 운영

군산시는 (사)군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황진) 주관으로 1일 문화경로당을 시작으로 오는 7월까지 주 1~2회, 총 12회에 걸쳐 2023 경로당 식사도우미 시범사업 '밥퍼스봉사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밥퍼스란 경로당 자원활동인 식사의 밥(Rice)과 도우주는 사람(helper's)의 합성어로 식사를 도와주는 사람을 의미하며, 관내 경로당 어르신들의 결식 예방 및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마을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2023년 신규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흥남동, 신흥동, 해신동 소재 경로당을 대상으로 경로당별 점심 식사도우미를 1일씩 지원하며, 경로당 선정조건은 센터 소재지 인근지역 경로당에 식사도우미를 지원한다.

시는 식사지원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경로당으로 지난 2월부터 사전 수요조사 및 현장답사를 완료했으며 총 12개 경로당이 선정됐다.

밥퍼스봉사단은 오손도손봉사단, 숲타움치유농장 커피동아리 단체 회원 20여명으로 구성됐며, 경로당별 준비된 식자재를 이용해 한 끼 점심식사를 만들어 제공하고, 어르신과 함께 식사와 말벗 봉사활동 및 커피 핸드드립 재능기부 활동 등을 실시한다.

군산시자원봉사센터 황진 이사장은 "경로당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소통하며 건강하고 따뜻한 마을 공동체를 구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 우체통거리 홍보관 이용의 날' 시민들 큰 호응

제6회 군산우체통거리 손편지축제 사전 체험 프로그램 진행

군산우체통거리 경관협정운영회(회장 배학사)가 2023년 제6회 군산 우체통거리 손편지축제(9월 8~9일)를 앞두고 우체통거리에서 '홍보관 이용의 날'이라는 사전 프로그램을 진행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시작된 우체통거리 '홍보관 이용의 날'은 매주 토요일마다 총 10회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이번 사전 프로그램은 체험 신청자 접수 하루 만에 모집 인원 200명을 훨씬 넘겨 신청이 조기 마감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우체통거리 홍보관 이용의 날 세부 프로그램은 △모스끼기 우체통 △우체통 모형 전통 △자개 머리핀 △타일 공예 △시나몬 캔들 △색안경 만들기 △LED 북스탠드, △스타일 캠핑전 등 △꽃한송이 풍선, △드림 캐처 등 총 10가지의 공예 체험과 응원엽서 쓰기 우체통거리 투어로 이뤄져 있다. 특히 공예체험 후 진행되는 응원엽서 쓰기는 나 가족 이웃에게 따뜻한



우체통거리에서 '홍보관 이용의 날'이라는 사전 프로그램을 진행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응원의 글과 사연을 응원우체통에 넣으면 선정을 통해 제6회 손편지 축제 개막식에서 시상도 하고 기념품도 증정한다.

군산 우체통거리 경관협정운영회 배학사 회장은 "홍보관 이용의 날은 제6회 손편지축제를 앞두고 시민들에게

군산 우체통거리를 알리고 지역축제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진행했다"면서 "운영 첫날부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즐겁게 체험하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본축제 준비를 더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첨단악취저감 행정... 시민참여 높여

익산시가 최첨단 악취측정 시스템에 대한 시민 체험기회를 제공해 악취저감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나간다.

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악취측정차 탐승데이'를 진행한다. '탐승데이'는 악취측정차를 이용해 악취포집 및 분석과정을 공개하고 악취발원지 역추적 시스템 등의 과학적 악취 행정 체험 기회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8월 전북 최초로 도입한 악

취측정차량에는 기상측정기와 악취포집, 분석기기 등이 탑재되어 있어 복합악취와 지정악취물질 22종 외 1,600여종의 화학물질 분석이 가능하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악취행정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악취측정차 탐승데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지역 고등학교 환경동아리 학생들의 체험 신청 등으로 폭넓은 연령층에서

악취 행정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악취측정차 탐승데이 참가자들은 "악취측정차를 이용해 실시간 측정 및 추적·단속·관리하는 익산시의 악취행정이 이렇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것에 매우 놀랐다"고 말했다.

악취측정차 탐승데이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환경관리과 전화(☎59-5434)로 신청하면 되며, 소요시간은 20분~30분 정도이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분들이 탐승데이를 신청하여 악취행정을 체험하기 희망한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수질오염총량제로 금강수계 하천보호 앞장

익산시가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의 선제적 관리로 친환경적 지역개발을 유도하며 하천 보호에 앞장선다.

시는 4단계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 관리 기본 및 시행계획 변경 용역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수질오염총량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수계구간별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목표수질 달성과 유지를 위해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정해 관리하는 제도로 시 전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시는 금강수계 6개 유역(만경, 만경 B, 만경 C, 논산A, 탐탄, 금보)으로 나누어 관리되고 있는데, 이중 탐탄A 유역은 익산시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개발현황 잔여부하량 여

유가 충분하지 않아 추가 삭감계획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미 수립된 수질오염 총량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추진하고 왕궁 학리마을 현업 측사 매입과 익산 공공하수처리장 관로 배출비 재산정을 통해 장래 개발현황 잔여부하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송4지구 택지개발, 물류단지 개발사업 등 도시 활성화로 개발현황 잔여부하량이 많아 소진하여 만경강 수변도시, 공공기관 이전 대비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 등 역동적인 도시건설을 위해 수질오염총량의 선제적 관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전기 사고 없는 안전한 청사 조성 나서

익산시는 장비철에 감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청사 기간전선점검을 펼친다.

시는 이달 1일부터 25일까지 북부청사 및 읍·면·동 청사 건물 34개소에 대해 전기시설물 정밀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방문 민원인이 많은 청사 위주로 전기화재·감전 등 재난 취약 및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재난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전기전문 점검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의해 고·저압 전기설비 절연저항·누설전류 측정, 접지저항 점검, 변압기 점검, 계전기 및 차단기 동작시험, 적외선 열화상 측정, 전원 품질분석 등 전기설비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점검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자체보수할 예정이며 많은 보수비가 수반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일괄 취합해 보수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교통사고 안전도시 '박차'

익산시가 교통사고 잦은 곳을 종점으로 개선해 교통안전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지난해 교통사고가 잦은 5개 장소에 대한 기본개설계획을 수립하고 5억9500만원을 투입해 교차로 내 교통섬 조성, 횡단보도정비, 교통안전표시 보강 등을 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지자체 등 기관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교통안전 증진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선정된 지정 및 구간은 영등동 성교명원 일원, 영등동 귀금속거리, 2공단 우체국거리, 신흥동 형제주유소 삼거리, 평화동거리~등기소거리이다.

시는 그동안 신호위반과 추돌사고가 주를 이루 사고예방에 초점을 맞춘 시설정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